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articipation in Childcare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thers with an Infant

박지선·류한수*·김정숙·윤정수·박천만·나카지마 카즈오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원 보건복지학연구과·우송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일본 바이카여자대학 현대인간학부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보건복지학부

Park, Ji Sun·Ryu, Han Su*·Kim, Jung Suk·Yoon, Jung Soo·Park, Chun Man·Nakajima Kazuo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Welfare,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Woosong University
Gyeongsangnam-Do Women's Development Center
Faculty of Contemporary Human Studies, Baika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Faculty of Health and Welfare Science, Okayama Prefectur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s purpose was to clarify childcare's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thers with an infant. This study included 1,250 households that used 15 nursery centers. The questionnaire asked about the fathers' age, income, working conditions, participation in childcare, recognition of sense of usefulness to their family, marital satisfaction, mental heal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QOL), and the mothers' age, number of children,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working conditions. A casual model was examined using S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contributed to health-related QOL through the recognition of feeling useful to their family. Seco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contributed to marital satisfact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health-related QOL and improved mental health. Thir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contributed to health related QOL through the recognition of feelings of usefulness, marital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indirec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mot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is important to help prevent many problems and to improve QOL.

Keywords: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recognition of sense of usefulness to family, psychological well-being,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I.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 노동'이라는 강한 성별분업양식 속에서 가정 내 아버지

* Corresponding author: Ryu, Han Su
Tel: 042-630-9262, Fax: 042-630-9269
Email:yuhansu@wsu.ac.kr

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구분되어 왔다. 즉,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써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녀에게는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역할로 존재하여 왔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김영희 외, 2007). 그러나 최근 핵가족화의 진전과 함께 기혼여성의 고용비율 증가 및 취업의식의 변화, 경제적 이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등으로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아버지 자신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조원지, 한경혜(2001)의 연구에서는 직장 위주의 삶보다 가족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가족에게서 심리적 만족을 찾으려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취업남성들이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및 아버지 자신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참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육아참가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가족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룬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 사회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가정 내 수요(household demands) 가설,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s) 가설, 대체자원(alternative resources) 가설, 시간적 여유 및 제약(time availability) 가설, 이데올로기(ideology) 가설 등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육아참가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Park et al., 2009; 石井クヰツ, 2004; 2009; 松田, 2004; 2006). 한편 후자의 경우,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배우자, 자녀, 아버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및 불안감(윤지원 외, 2009; 이수미, 민하영, 2007)을 경감시키고, 육아분담이 부부간 역할에 대한 불공평감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유진, 김선애, 2007). 또한 남편의 육아참가로 배우자의 부부관계만족감(장재홍, 김대성, 2002) 및 정신적 건강(허보윤, 한경자, 2009)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적응 및 도덕성, 친사회성 등의 사회

성 발달과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송요현, 현은강, 2008; 이영미, 민하영, 2006; Gable et al., 1992; 石井クヰツ, 2004). 또한 자녀의 발달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Lamb, 1986),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녀의 성역할과 성취동기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균, 2000). 더불어 최근에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다른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한편에 양육을 통해 아버지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부모로서의 효능감 및 자신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김기현, 1998; 김선애, 한유진, 2009; 김혜연, 신유림, 2005; 永久 외, 2004; 住田, 藤井, 1998).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버지 자신을 인간적으로 성숙시키고(황정해, 2006; 柏木, 若松, 1994; 森下, 岩立, 2009; 佐々木, 1996), 부성 역할에 대한 생산적 발견과 만족감(김진희, 2005; Gerson, 1997)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어 부부관계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中川, 2008).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육아참가를 통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아버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직접 검증하기보다는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설명변수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직장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김소영, 옥선화, 2000) 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복지는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Diener et al., 1999; Ryff, 1989; 鈴木, 2002)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복지는 만족감, 행복감,

우울과 같은 일반적인 심리상태를 포함한다(Moen *et al.*, 1995; Mrozek, Kolarz, 1998; 坊迫, 星, 2010).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과도 관련하고 있다(Moen *et al.*, 1995). 이러한 심리적 복지에 대하여 鈴木(2002)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이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각각의 측면마다 다시 두 개씩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인지적 측면은 전체적인 만족감과 특정의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만족감으로 나뉘고, 정서적 측면은 유쾌감정(긍정적인 감정 경험)과 불쾌감정(부정적인 감정 경험)으로 나뉜다. 이 4개의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할 때 특정의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부부관계만족감으로, 불쾌감정은 우울감으로 하여 심리적 복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정자, 김갑숙(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만족감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복지는 최종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복지에 대한 변수 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한편, 石井クヰ(2004)는 아버지의 육아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육아에 대한 지원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藤田, 金, 2002; 中嶋 외, 2000).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원을 의미하는 '수령적 지원'과 타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제공적 지원'으로 분류된다(山下 외, 2009). 이러한 사회적 지원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수령적 지원의 입장에서 심신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에는 제공적 지원이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山本 외, 2008). 이를 근거로 한다면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제공적 지원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제공적 지원이 타자공헌감(feeling of usefulness to others)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자에게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자신이 타자를 위해 무언가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는 것이 검증되었다(Gruenewald *et al.*, 2007; 矢庭, 2008). 이러한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가족·가정에 대한 제공적 지원을, 타자공헌감은 아버지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의 의미를 반영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버지의 육

아참가를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수령적 지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제공적 지원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아버지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참가를 유도하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질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복지, 즉 부부관계만족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부부관계만족감과 우울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중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과 부부관계만족감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버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공헌감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平山 외, 2003) 및 남편의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中川, 2008)을 고려하여 부부관계만족감을 인과관계 모형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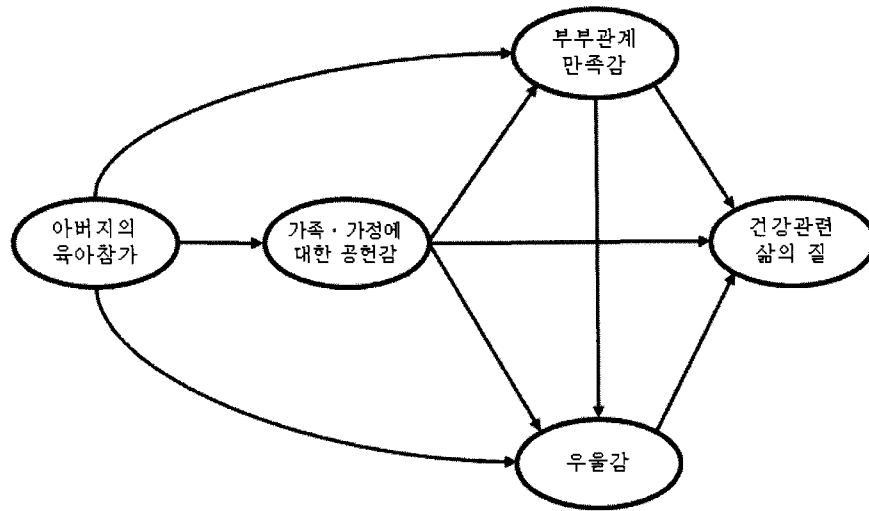
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그림 1]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자신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부관계만족감을 통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울감을 통해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 S시, C시, Y시내의 어린이집 15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509세대의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은 각 어린이집의 책임자를 설문조사원으로 하였다. 조사원은 설문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기재된 의뢰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였고, 이에 동의를 얻은 세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다. 배포된 설문지 1250세대 가운데, 총 739세대(회수:S시-135세대, C시-344세대, Y시-260세대)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59.1%).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필요한 자료로서 아버지 자료에서는 연령, 수입, 취업형태, 육아참가,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인지, 부부관계만족감, 우울감(GHQ-12), 건강관련 삶의 질을 발췌하였고, 어머니 자료에서는 연령, 자녀수, 막내자녀 나이, 취업형태를 발췌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육아참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0; 国立女性教育會館, 2006)를 참고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 10문항(1. 아이의 놀이상대, 2. 놀이터에 데려가기, 3. 아이에게 그림(동화)책 읽어주기, 4. 아이 목욕시키기, 5. 아이 재우기, 6. 아이 밥 먹이기, 7. 기저귀(속옷 등)갈아주기, 8. 아이 달래기, 9.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데러오기, 10. 간병하기/병원에 데려가기)으로 구성하였다(이를 아버지의 육아참가 측정척도라고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하지 않는다'에서 '4점:매일/매회 하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육아참가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과 내적일치성에 대해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검토한 결과, CFI는 .93, RMSEA는 .09로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도 .88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2)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llen(1993)과 Gruenewald *et al.*(2007)의 타자공헌감(feeling of usefulness to others) 개념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공헌감(sense of usefulness)이란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거나 자신

의 타인을 위한 활동이 생산적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Ellen, 1993). 또한 Gruenewald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타자공헌감에 대해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을 가족으로 바꾸어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아버지 본인이 가족에 대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桐野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가족)에 대한 공헌만족감 척도를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자신의 공헌 정도에 관한 만족감을 7문항(1. 가족구성원과의 여가활동(레저), 2. 가족과의 의사소통, 3. 집안일, 4. 육아(수발), 5. 가정 내 인간관계 형성, 6. 가족에 실현, 7.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구성하였다(이를 아버지의 가족, 가정에 대한 공헌감 측정척도라고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만족하지 않는다', '1점:어느 쪽도 아니다', '2점:만족하고 있다'까지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가족, 가정에 대한 공헌감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과 내적일치성에 대해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검토한 결과, CFI가 .96, RMSEA가 .09로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도 .83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3) 부부관계만족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부관계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Norton(1983)이 개발한 QMI(Quality Marriage Index)를 諸井(1996)가 일본어판으로 번역한 부부관계만족감 척도를 다시 한국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이를 부부관계만족감 측정척도라고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전혀 해당하지 않는다'에서 '3점:매우 해당한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부부관계만족감 측정척도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6문항 1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CFI가 .96 RMSEA가 .17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 문항 간 상관계수를 참고로 내용적으로 중복된 문항이라고 판단된 '3. 우리 부부관계는 대체로 견고하다'를 삭제한 후 5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 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CFI가 .99, RMSEA가 .0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도 .93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4) 우울감(GHQ-12)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oldberg와 Hiller(1979)가 개발한 일반정신건강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 12문항 단축판을 사용하였다(이를 GHQ-12 측정척도라고 한다). GHQ-12는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KR-20 신뢰성 계수를 산출한 결과, CFI가 .98 RMSEA가 .0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KR-20 신뢰성 계수는 .84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다. GHQ-12에 대한 응답은 0-3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하고, 수량화는 GHQ채점법(4점 척도를 왼쪽부터 0-0-1-1점으로 환산함, 12점 만점)에 따라 계산하였다(福西, 1990). 따라서 득점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5)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은 中嶋 외(2003)가 개발한 건강관련 삶의 질 만족도 척도의 5영역 15문항 가운데 3영역(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 총 9문항을 발췌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 3영역에 대해 각각 피로의 회복능력, 일에 대한 집중력, 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이를 개정판 3영역 건강관련 삶의 질 만족도 측정척도라고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아니다', '1점: 어느 쪽도 아니다', '2점: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개정판 3영역 건강관련 삶의 질 만족도 측정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과 내적일치성에 대해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검토한 결과, CFI가 .95, RMSEA가 .07로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에 있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도 .88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각 영역별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신체적 요인 .89, 정신적 요인 .74, 사회적 요인 .78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12.0J for Windows와 M-plus2.14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와 백분

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측정척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3점 척도 이상일 경우)와 KR-20신뢰성 계수(2점 척도일 경우)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요인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문제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인과관계모형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이하일 경우,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추정법은 WLSMV (Weighted Least Square parameter estimates using a diagonal weight matrix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mean-and variance-adjusted chi-square test statistic)를 사용하였다.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검정 통계량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때 절대치가 1.96이상(유의 수준 5%)을 나타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통계분석에는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09세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속성 분포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6.7세(표준편차 4.1, 범위 25-50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1세(표준편차 3.6, 범위 23-45세)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309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막내 자녀의 나이는 평균 3.2세(표준편차 1.8, 범위 0-7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19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정규직)이 245명(48.1%),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무직이 293명(57.6%)을 차지하고 있었다.

2. 각 측정도구의 점수분포 및 변인간의 관계

각 측정도구에 대한 득점 및 상관관계를 <표 2>와 같이 나타냈다. 먼저 각 측정도구에 대한 득점의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육아참가 측정척도'에서는 평균 16.4점(표준편차 8.2), '아버지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측정척도'에서는 평균 9.3점(표준편차 4.1), '부부관계만족감 측정척도'에서는 평균 11.6점(표준편차 3.1), 'GHQ-12'에서는 평균 3.1점(표준편차 2.9), '개정판 3영역 건강관련 삶의 질 만족도 측정척도'에서는 평균 13.9점(표준편차 6.9)이었다. 또한 각 측정도구의 합계득점으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과관계모형[그림2]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chi^2=376.75$, $df=169$, $CFI=.97$, $RMSEA=.05$ 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만족시켰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육아참가에서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과 건강관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39와 .4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즉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높을수록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높게 인지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참가에서 부부관계만족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10,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에서 부부관계만족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66, 부부관계만족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1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 즉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간의 관계에 있어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부부관계만족감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참가에서 우울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거쳐 우울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5, 부부관계만족감을 거쳐 우울감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3, 우울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34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높을수록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높게 인지하여 부부관계만족감을 높여주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우울감 간의 관계에 있어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은 매개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모형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R^2=.60$ 으로 60.0%의 설명력을 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9

연령	아버지	평균 ± 표준편차	36.7세 ± 4.1	범위	25-50세
	어머니	평균 ± 표준편차	34.1세 ± 3.6	범위	23-45세
	막내자녀	평균 ± 표준편차	3.2세 ± 1.8	범위	0-7세
변수	구분	명(%)	변수	구분	명(%)
자녀수	1명	116 (22.8)	아버지 월수입	100만원 미만	18 (3.5)
	2명	309 (60.7)		100만원-200만원 미만	149 (29.3)
	3명	81 (15.9)		200만원-300만원 미만	192 (37.7)
	4명	2 (.4)		300만원-400만원 미만	94 (18.5)
	5명	1 (.2)		400만원-500만원 미만	33 (6.5)
				500만원 이상	23 (4.5)
아버지 직업	회사원(정규직)	245 (48.1)	어머니 직업	회사원(정규직)	59 (11.6)
	회사원(비정규직)	43 (8.4)		회사원(비정규직)	16 (3.1)
	공무원(지방, 국가)	39 (7.7)		공무원(지방, 국가)	27 (5.3)
	자영업	105 (20.6)		자영업	27 (5.3)
	전문직	24 (4.7)		전문직	29 (5.7)
	파트, 아르바이트	1 (.2)		파트, 아르바이트	25 (4.9)
	기타	50 (9.8)		기타	33 (6.5)
	전업주부, 무직	2 (.4)		전업주부, 무직	293 (57.6)

〈표 2〉 각 측정도구의 점수분포 및 변인간의 관계

N=509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아버지의 육아참가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부부관계 만족감	우울감 (GHQ-12)	건강관련 삶의 질
아버지의 육아참가	16.4 (±8.2)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9.3 (±4.1)	.30**				
부부관계 만족감	11.6 (±3.1)	.12**	.50**			
우울감 (GHQ-12)	3.1 (±2.9)	-.12**	-.45**	-.45**		
건강관련 삶의 질	13.9 (±6.9)	.18**	.54**	.47**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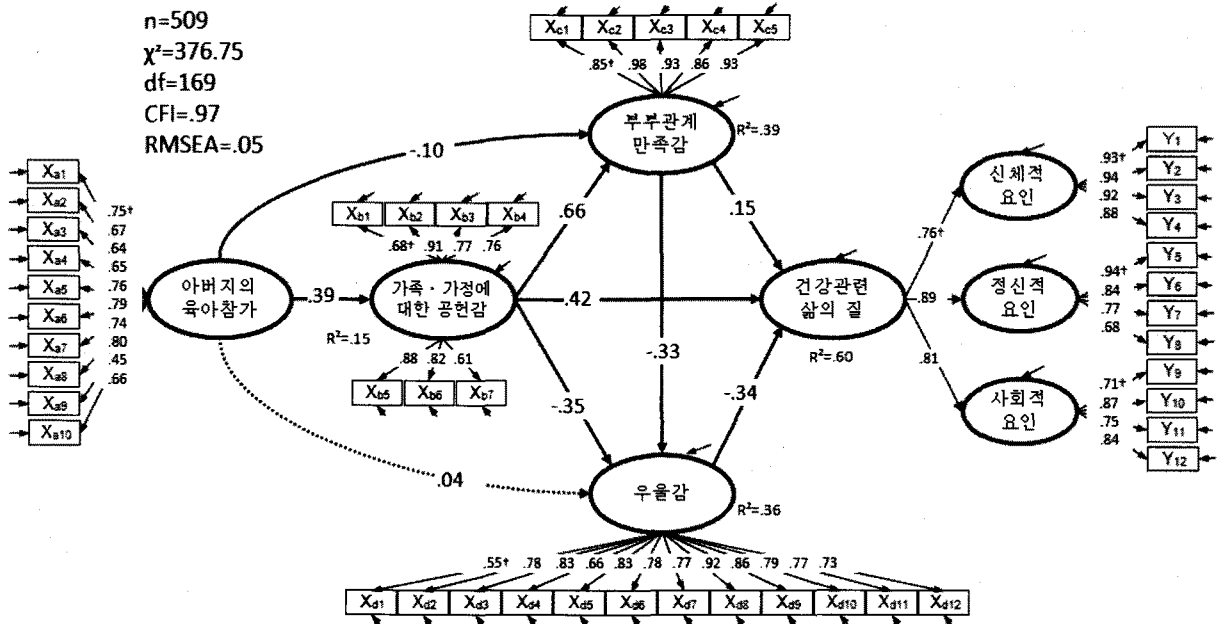
**p<.01

지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

면,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녀와 배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송요현, 현온강, 2008; Gable et al., 1992; 石井クヰツ, 200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버지 자신의 인간적 성숙 등에 관한 연구(황정해, 2006; 福丸, 1997; 柏木, 若松, 1994; 森下, 岩立, 2009; 佐々木, 1996)를 제외하면,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주1) †는 모형의 식별을 위해 제약을 가한 곳을 의미한다.
 주2) 점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실선은 유의한 경로계수(p<.05)를 의미한다.
 주3) 모형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오차변수 및 오차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생략하였다.

[그림 2]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표준화계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타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Lu & Argyle, 1992; 山本 외, 2008)가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초로 미취학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조사의 통계분석에 있어서는 모형의 구성력이 유연하면서 측정오차의 분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적합도 지표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채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자신의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거쳐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제공적 지원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점(山本 외, 2008), 타인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생활만족감이 서로 관계하고 있다는 점(Gruenewald et al., 2007), 제공적 지원이 타자 공헌감을 통해 생활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矢庭, 2008)에 대해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버지에게 있어서 육아참가란 가정의 일원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가사참가와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고정자, 김갑숙, 1999; 조원지, 한경혜, 2001)도 있으나 그 영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즉 가사 및 육아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간접효과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직접적으로 부부관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는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부관계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육아참가가 부부관계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木下, 2004), 남편의 육아참가가 반드시 좋은 부부관계를 형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연구(石井クヰツ, 2009), 그리고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中川, 2008) 등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육

아침가가 아버지 자신의 부부관계만족감을 감소시킨다는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에 대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육아참가와 부부관계만족감 간에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이라는 매개적 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부부관계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육아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아내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자신의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하고, 다시 부부관계만족감을 경유함으로써 우울감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부부관계만족감이 자신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유익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우선 부부관계만족감이 우울감이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는 부부관계만족감이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伊藤 외, 2004)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만족감은 우울감이나 주관적 행복감을 좌우한다(고정자, 1998; 하상희, 2008; 遠藤, 1997; 伊藤 외, 2004)는 보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본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참가와 자신의 우울감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蟹江(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두 변수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蟹江(2005)는 우울과의 관련성을 나타낼 정도까지 아버지의 육아참가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육아참가와 우울감 사이에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이나 부부관계만족감과 같은 변수를 투입하고 있어 이 변수들의 영향으로 육아참가와 우울감의 관계성이 희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육아참가와 우울감의 관계를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간접효과로 가정하고 있는데 매개효과와 간접효과는 가정이 성립한 반면, 직접효과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육아참가와 우울감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단계를 거침으로써 그러한 평가에 대해 반응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부부관계만족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小野寺(2005)와 田中(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자녀의 탄생에 따라 부부가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만큼 부부가 함께하는 자유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부부간 친밀성이 저하된다는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육아참가가 첫째,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 부부관계만족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한편으로는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통해 부부관계만족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다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셋째,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을 거쳐 부부관계만족감 및 우울감을 통해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제공적 지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자신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참가는 자신의 심리적 복지는 물론 어머니의 부부관계만족감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부가 육아에 대해 서로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감으로써 가족 간 양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원조사대상의 절반 이하였다. 이는 본 조사가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되어 부부 모두의 설문이 동봉된 것에 한해 회수된 설문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회수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에서 삭제된 대상과 본 연구대상간의 응답경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 분석 시 표본수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200이상이면 안정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Boomsma, 1985; 豊田秀樹에서 재인용, 2003)에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표본수보다는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이 데이터에 적합한가라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육아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여 자녀의 연령,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통제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육아참가의 매커니즘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아버지의 육아참가를 돕는 실천적인 제언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부부가 참가할 수 있는 부모교실 등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적으로는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참가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자기조정제도의 활성화, 근무조건 및 직장풍토 개선 등과 같은 질 높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아버지의 육아참가, 가족·가정에 대한 공헌감,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만족감, 우울감

참 고 문 헌

- 고정자. (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고정자, 김갑숙. (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9-76.
- 김기현. (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선애, 한유진. (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김소영, 옥선화. (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진희. (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혜연, 신유림.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93-102.
-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요현, 현은강. (2008). 아동 및 아버지가 지각한 아버지 역할수행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32-147.
- 윤지원, 황라일, 조현하. (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수미, 민하영. (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19-225.
- 이영미, 민하영. (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 장재홍, 김태성. (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조원지, 한경혜. (2001). 직업 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하상희. (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한유진, 김선애. (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허보운, 한경자.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황정해. (2006). 아버지됨(Fathering)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43-60.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llen, S. S. (1993). Making sense of usefulness-an avenue toward satisfaction in later life.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313-325.
- Gable, S., Belsky, J., & Crnic, K. (1992). Marriage,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rogres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5(3-49), 276-294.
- Gerson, K. (1997).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generative fathering: Creating social supports for parenting equality. In Hawkins, A. J. & Dollahite, D. C. (Eds.).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pp. 36-51). Newbury Park, CA: Sage.
- Goldberg, D. P., & Hiller, V. F.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 139-145.
- Gruenewald, T. L., Karlamangla, A. S., Greendale, G. A., Singer, B. H., & Seeman, T. E. (2007). Feelings of Usefulness to Others, Disability,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The MacArthur Study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2B(1), 28-37.
- Lamb, M. (1986). The changing roles of the fathers: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
- Lu, L., & Argyle, M. (1992). Receiving and giving support: Effects on relationships and well-being. *Counselling Psychiatry Quarterly*, 5, 123-133.
- Moen, P., Robinson, J., & Dempster-McClain, D. (1995). Caregiving and women's well-being: A life course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59-273.
- Mrozek, D. & Kolarz, C.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75, 1333-1349.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Park, J. S., Kondo, R., Kim, J. S., Sasai, T., Takahashi, S., Park, C. M., & Nakajima, K. (2009). Examination of Generating Mechanism Concern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6(5), 57-70.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石井クツ昌子. (2004). 父親の子育て参加と就学児の社会性に関する日米比較調査. *家族社会学研究*, 16(1), 83-93.
- 石井クツ昌子. (2009). 父親の役割と子育て参加-その現状と規定要因, 家族への影響について. *季刊家計経済研究*, 81, 16-23.
- 伊藤裕子, 相良順子, 池田政子. (2004). 既婚者の心理的健康に及ぼす結婚生活と職業生活の影響. *心理学研究*, 75(5), 435-444.
- 遠藤由美. (1997). 親密な関係性における高揚と相対的自己卑下. *心理学研究*, 68(5), 387-395.
- 小野寺敦子. (2005). 親になることにもなう夫婦関係の変化. *発達心理学研究*, 16(1), 15-25.
- 柏木恵子, 若松素子. (1994). 「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発達: 生涯発達の視点から親を研究する試み. *発達心理学研究*, 5(1), 72-83.
- 蟹江敦子. (2005). 父親の家事育児と母親の主観的健康. *季刊家計経済研究*, 68, 62-71.
- 木下栄二. (2004). 結婚満足度を規定するもの. 渡辺秀樹, 稲葉昭和, 嶋崎尚子 編, 現代家族の構造と変容-全国家族調査NFRJ98による計量分析. 東京大学出版会, 77-292.
- 桐野匡史, 金潔, 近藤理恵, 三輪英理子, 尹靖水, 朴志先, 林浩康, 中嶋和夫. (2008). 就学前児の父親における家事育児参加と家庭地域社会への貢献満ち感および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充実度との関連性. 家族・労働政策等の少子化対策が結婚・出生行動に及ぼす効果に関する総合的研究.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政策科学推進研究事業, 167-172.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0). 第2回全国家庭動向調査.

- 国立女性教育会館. (2006). 平成16年度・17年度家庭教育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
- 佐々木保行. (1996). 父親の発達研究と家族システム-生涯発達心理学的アプローチ-. 教育心理学年報, **35**, 137-146.
- 住田正樹, 藤井美保. (1998). 育児不安に関する研究-父親の場合-. 九州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紀要, **1**, 79-98.
- 鈴木有美. (2002). 自尊感情と主観的ウェルビーイングからみた大学生の精神的健康-共感性およびストレス対処との関連-.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紀要心理発達科学, **49**, 145-155.
- 田中恵子. (2010). 父親の育児家事行動・夫婦関係満足度の変化と母親の育児ストレスとの関連性. 人間文化研究科年報, **25**, 125-134.
- 豊田秀樹. (2003). 共分散構造分析[疑問編]-構造方程式モデリング-. 東京: 朝倉書店.
- 中川まり. (2008). 夫の家事育児参加と夫婦関係-乳幼児をもつ共働き夫婦に関する研究-. 家庭教育研究所紀要, **30**, 97-197.
- 中嶋和夫, 桑田寛子, 林仁実, 岡田節子, 朴千万, 齊藤友介, 間三千夫. (2000). 父親の育児サポートに関する母親の認知. 厚生指標, **47**(15), 11-18.
- 中嶋和夫, 香川幸次郎, 朴千万. (2003). 地域住民の健康関連QOLに関する満足度の測定. 厚生指標, **50**(8), 8-15.
- 永久ひさ子, 柏木恵子, 姜蘭恵. (2004). 父親における子どもの価値と子どもを持つ負担感-日韓比較研究. 文京学院大学研究紀要, **6**(1), 43-59.
- 平山順子, 田矢幸江, 柏木恵子. (2003). 育児期夫婦の配偶者満足度を規定する要因-妻の就労形態別の検討-. 発達研究, **17**, 69-85.
- 福西勇夫. (1990). 日本版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のcut-off point. 心理臨床, **3**(3), 228-234.
- 福丸由佳. (1997). 子どもとの関わりと父親の発達: 都市部と一部の地域差の検討. 母子研究, **18**, 60-68.
- 藤田大輔, 金岡緑. (2002). 乳幼児を持つ母親の精神的健康度に及ぼすソーシャルサポートの影響. 日本公衆誌, **49**(4), 305-313.
- 坊迫吉倫, 星旦二. (2010). 都市在宅高齢者における等価収入と幸福感・生活満足感・主観的健康感の構造分析. 社会医学研究, **27**(2), 45-52.
- 松田茂樹. (2004). 男性の家事参加-家事参加を規定する要因-. 渡辺秀樹, 稲葉昭和, 嶋崎尚子編, 現代家族の構造と変容-全国家族調査NFRJ98による計量分析. 東京大学出版会, 175-189.
- 松田茂樹. (2006). 近年における父親の家事・育児参加の水準と規定要因の変化. 季刊家計経済研究, **71**, 45-53.
- 森下葉子, 岩立京子. (2009). 子どもの誕生と父親の発達の過程. 東京学芸大学紀要総合教育科学系, **60**, 9-18.
- 諸井克英. (1996). 家庭内労働の分担における衡平性の知覚. 家族心理学研究, **10**(1), 15-30.
- 矢庭さゆり. (2008). 要介護(支援)認定を受けた高齢者の他者への提供サポートが他者貢献感および生活満足感に与える影響. 新見公立短期大学紀要, **29**, 59-65.
- 山下匡将, 島谷綾郁, 早川明, 村山くみ, 小関久恵, 嘉村藍, 宮本雅央, 大月和彦, 志水幸. (2009). 島嶼地域住民のソーシャルサポートに関する研究-新潟県岩船郡粟島浦村住民のライフスタイルとの関連-. 名古屋学院大学論集社会科学篇, **45**(3), 105-116.
- 山本友美子, 堀匡, 大塚泰正. (2008). 大学生におけるサポート提供者知覚が精神的健康に及ぼす影響-エスティー・エンハンスメント理論に基づく縦断的検討-. 広島大学心理学研究, **8**, 147-162.

접수일: 2010. 11. 05.

수정완료일: 2011. 04. 13.

게재확정일: 2011. 04. 22.